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 평소에 글을 쓰다 보면 문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띄어쓰기 하는 것이 바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것 같다.’, ‘나도 할 수 있다.’ 등이 있는데 보통 ‘그런것 같다.’, ‘나도 할수 있다.’처럼 띄어쓰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보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답 >> 위에 제시하신 부분은 각각 ‘그런V것V같다.’, ‘나도V할V수V있다.’와 같이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것, 수’의 품사는 의존 명사이고,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르면 문장에서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먼저, 의존 명사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존 명사(依存名詞):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서 명사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적인 독립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단어들을 앞말과 붙여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라 ‘것’, ‘수’ 등의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비슷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 (1) 철수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 (2)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라.
- (3) 나도 그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1)의 ‘텐데’는 ‘터인데’가 줄어든 형태로 예정이나 추측, 처치나 형편 등을 나타내는 ‘터’가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2)의 ‘만큼’은 주로 어미 ‘-은, -는’ 뒤에 쓰입니다. 앞의 내용에 상응하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거나,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낼 때에 쓰입니다. (3)의 ‘뿐’ 역시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어미 ‘-을’ 뒤에서 ‘다만 어찌하거나 어떠한 따름’의 뜻을 나타내거나 ‘-다 뿐이지’의 꼴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 쓰입니다. 글을 쓸 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띄어서 쓰는 것이 바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음 >> “표준 규격에 **알맞지 않은** 제품은 매장으로 **갖어 오시면** 바로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위 문장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김인기,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답 >> “표준 규격에 **알맞지 않은** 제품은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바로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위 문장에는 잘못된 표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않는**’을 ‘**않은**’으로 고쳐야 합니다. ‘**않다**’는 동사, 보조 형용사, 보조 동사의 품사로 나뉩니다.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위의 경우 형용사 ‘**알맞다**’와 결합하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된 구조로 쓰여 그 품사가 보조 형용사입니다.

단어의 품사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어미가 달라집니다. **형용사에는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동사는 어미 ‘-는’과 ‘-은’이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어미 ‘-는’은 현재를 나타내며 어미 ‘-은’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 형용사인 ‘**않-**’에는 어미 ‘-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않는**’은 ‘**않은**’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갖어**’를 ‘**가져**’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말 중에는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내디디다, 가지다’는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 내딛다, 갖다’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6항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준말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아, 갖아라, 갖았다, 갖으오, 갖은**’ 따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에는 어미 ‘-야’가 결합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의 ‘**갖어**’는 ‘가지다’의 활용형인 ‘**가져**’로 표기하거나

‘가지다’의 준말 ‘갖다’와 결합 가능한 자음 어미인 ‘-고’와 연결하여 ‘갖고’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제시된 조건과 의미를 참조하여 바른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음 >> 준말을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간편하게’를 흔히 ‘간편케’라고 하고, ‘생각하건대’를 ‘생각컨대’라 발음하는데,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3동)

답 >> ‘간편하게’의 준말은 ‘간편케’입니다만,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컨대’가 맞습니다. 이는 어간의 끝 음절이 ‘하’로 끝나는 경우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것과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어들어서 발음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0항’에서는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가하다	가타
다정하다	다정타
정결하다	정결타
흔하다	흔타

‘간편하게, 연구하도록, 가하다’ 등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탈락하고, 남은 ‘ㅎ’이 뒤에 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로 바꾸므로 현실 발음에 근거하여 ‘간편케, 연구토록, 가타’로 적습니다.

그런데 [붙임 2]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하여,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보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하여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이는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예시된 낱말을 보면 대체로 ‘ㄱ, ㅂ, ㅅ’ 받침이 ‘-하’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각하건대’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 ‘하’가 그대로 탈락되어 [생각컨대]가 아닌 [생각건대]로 발음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표기도 ‘생각건대’로 합니다.

요컨대, ‘-하’ 앞의 말이 모음이나 유성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과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간편하게 -> 간편케’처럼 줄어들고, ‘ㄱ, ㅂ, ㅅ’과 같이 무성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가 아주 줄어 ‘생각하건대->생각건대’처럼 줄어듭니다.

다만, 이 형태를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서슴지 않다’를 *‘서슴치 않다’로 잘못 쓰는 예가 많은데, ‘서슴다’는 그 자체가 기본형이고 ‘서슴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서슴치’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서슴다’의 어

간 ‘서슴’에 어미 ‘-지’를 붙이면 ‘서슴지’가 됩니다. ‘-하지’를 줄인 말과 형태가 다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음 >> ‘바라다’를 흔히 ‘-해주길 바라.’ 이렇게 쓰는데 규정은 ‘-해주길 바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요? ‘말하다’는 ‘솔직하게 말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 이렇게 쓰나요? 또 ‘강하다’ 등의 예를 포함하여 단어의 끝이 ‘-아’나 ‘-해’나 ‘-하’로 구분되는 규정 좀 알려 주세요.

(질문자 : 김기철)

답 >> 용언 어간의 환경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의 이형태(-아, -어, -여)와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활용할 때 일어나는 형태 변화를 이해하면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결형으로 ‘바라다’를 ‘바라.’로, ‘말하다, 강하다’를 ‘말해./강해.’로 쓰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라다’와 ‘말하다, 강하다’의 어간에 결합하는 종결 어미 형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결합할 수 있는 종결 어미로는 ‘-아’가 있는데, 이 ‘-아’는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 명령, 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또 ‘말하다, 강하다’의 어간 ‘말하, 강하’에 결합할 수 있는 종결 어미로는 ‘-여’가 있는데, 이 ‘-여’는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 명령, 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바라다/말하다/강하다’ 어간의 환경에 맞게 연결하면 그 결과는 각각 ‘바라아/말하여/강하여’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 중 ‘바라아’는 ‘그렇게 하길 바라.’의 ‘바라’와 같이 반드시 준 대로 쓰이며, ‘말하여, 강하여’는 ‘솔직하게 말해./나는 누구보다 강해.’와 같이 ‘하여’가 ‘해’로 될 적에는 ‘말해, 강해’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야’가 ‘바라.’로, ‘말하여/강하여’가 ‘말해./강해.’로 줄어들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라야’가 ‘바라.’의 형태가 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와 관련이 있고, ‘말하여/강하여’가 ‘말해/강해.’의 형태가 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음 >> 사전을 보면, 조사 ‘는’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문인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에서는 ‘사과’와 ‘배’가, ‘산에는 눈 내리고 들에는 비 내린다.’에서는 ‘산’과 ‘들’이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 최민호)

답 >>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조의 대상이 문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와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내린다.’에서는 대조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에서 대조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는 보조사 ‘는’이 결합된 ‘먹다’라는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항목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자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 (1) 그 과자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는 보았다.
- (2) 그 과자를 (사 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는 보았다.
- (3) 그 과자를 (팔아 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는 보았다.
- (4) 그 과자를 먹어 보았다.

위에서 문장 (1), (2), (3)에서 ‘먹다’의 행위가 대조를 이루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로써 ‘-는’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만약 앞선 문장에서 예시한 괄호 속의 내용들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먹어는’으로 발화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이는 문장 (4)와 같이 표현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에서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